

민주-혁신당 합당 추진...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양론

민주·초선 28명 반대 성명...진진들 “지방선거 필승전략” 찬성
혁신당 내부서도 다당제 존립 놓고 이견...입지자들 우려 많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광주·전남 시민사회도 다당제 정치의 희망과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공개 제안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적 비전과 당원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양당 합당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양당 합당은 향후 여권 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양당 합당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제기되면서 당내뿐만 아니라 당원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다당제 정치의 가능성을 열겠다는 기대를 받아왔지만, 민주당과의 흡수 합당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전일발당245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 섞인 시민들의 쓴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이사장은 “혁신당은 그동안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민주당과는 다른 선포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것인데, 이번 논의는 그 희망을 저버리는 셈”이라며 “지금까지 성공한 통합 정당들이 과연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무리한 통합이 오히려 기득권을 지켜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태 명예교수도 “조국혁신당은 다당제 정치의 가능성을 열겠다는 기대를 받아왔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한 흡수가 아니라, 핵심 조건을 분명히 관철하는 명분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이 정치사적으로 반복돼 온 ‘차이 없는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지역당 내부에서도 합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운정 조국혁신당 서귀지역위원회는 “조국혁신당은 제3당으로 남아야 한다”며 “흡수 합당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에서 다당제 존립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합당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은 출마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구 의원 출마 등 가능성을 기대해온 당원들에게는 사실상 정치 참여의 문이 닫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남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혁신당 한 입지자는 “합당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세력 결합이나 선거 전략이 아니라 사회대개혁 과제와 정당 정체성 문제”라며 “현장에서 활동해온 수많은 당원과 예비 후보들의 정치적 노력과 땀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구조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의원 28명이 참여한 규탄 성명을 공유하며 “당의 운명을 좌우할 합당 문제를 어떠한 공식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8명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통합에 찬성의 뜻을 내비치면서 당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당 통합 찬성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진보 지지층이 분산돼 여소야대 정국이 흔들린다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담양특강에서 초선의원들의 반대 성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은 당내의 의결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고 당원들은 소신 따라 찬성, 반대 의견을 표하면 된다”며 “혁신당과 통합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길이다. 혁신당 역시 12석만으로는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국민의힘을 압도하기 위한 6·3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이자, 내란의 잔불을 완전히 끄기 위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합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



조국혁신당 지도부 5·18 참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 광주시당 당직자, 출마자 및 당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1인1표제’ 당원 85.3% 찬성...다음주 확정

여론조사 참여율 31%대...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찬반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 다만, 여론조사 참여율은 31%대에 머물렀다.

24일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에는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1만5827명이 1인1표제에 찬성했다. 반대는 5만4295

명으로, 14.7%였다.

지난해 11월 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투표율과 찬성 인원이 늘었다. 민주당은 당시에는 같은 해 10월 당비를 낸 당원(164만506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투표 참여자 27만6589명(전체의 16.81%) 중 86.8%가 찬성했다.

정 대표는 이런 결과를 앞세워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나섰으나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었다.

이에 정 대표는 1인1표제 재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은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시장 후보 7억2400만원, 도지사는 15억원

광주·전남 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확정...교육감 후보도 동일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는 7억 2400여만원, 전남도지사 후보는 15억 800여만원까지 선거비 지출이 가능하다.

광주·전남 시도통합이 성사돼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재조정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를 통해 각 선거별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확정했다.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북구청장 선거 2억 5500여만원, 광산구청장 선거 2억 3400여만원, 서구청장 선거 2억 300여만원, 남구청장 선거 1억 8400여만원, 동구청장 선거 1억 5300여만원까지 선거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제한액은 1억 4900만원 가량으로 여수시장 선거가 2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진도군수 선거가 1억 2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용

(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됐다.

광주시의원 선거의 평균 제한액은 56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억 2800만원 수준이며, 구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 비례대표는 6200만원 선이었다.

전남도의원선거는 지역구별로 평균 5200만원,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500만원 수준이다. 비례대표는 도의원 선거가 평균 1억 5000만원, 시·군 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 가량이다.

다만 양 시·도 선관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 중으로, 추후 선거구역 변경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국힘, 전국서 쌍특검법 1인 시위 ‘여론전’

국민의힘은 25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현금 의혹) 단식’ 이후 부정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에서 ‘선택적 특검 납발 민주당, 공천뇌물도 특검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당 차원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은 펼치는 동시에 지역구별로 쌍특검 입법 필요성을 알리는 당원교육도 실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일까지 정치후원금을 받는 자신의 후원회 계좌를 막아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의혹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은 ‘클린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